

구술자료 상세목록

사업명	미추홀, 살아가다2 ‘승기천을 기억하다’				
구술자명	김갑성, 김연수	면담자	문성예		
면담장소	용일자유시장	면담지원	-		
면담 일시	2019년 10월 17일(목) 오후2시	회차	1	시간	75분 16초
자료번호	MichuholCA-07-00000736				
구술 개요	고등학교 시절의 승기천에 대한 기억, 폭이 넓었던 승기천, 흐르는 개천에서 빨래와 밭 농사를 지었음, 지역의 고도가 높았음, 용의 생김새를 닮아서 용머리라고 부름, 졸업식날 밀가루 세례를 받고 승기천에서 닦아내는 에피소드, 복개사업 하는 모습을 봄, 승기천이 바다로 물이 다 빠졌음, 물줄기는 혈관의 핏물과 같음				
주요 색인어	인천, 승기천, 개천, 방죽, 우물, 물줄기, 밭, 독, 용현동, 홍역, 독정이고개, 용머리, 수영, 졸업식, 밀가루, 자장면, 복개사업, 물고기, 물길				
구술 상세목록 내용			시간	관련 파일(비공개)	
1. 젊은 시절 승기천에 대한 기억			00:00:00~ 00:07:37	▷ 구술활용동의서 ▷ 개인정보동의서 ▷ 음성파일 ▷ 원고 원본	
- (김연수)1948년 충남에서 태어나 6살에 인천으로 옮.					
- (김연수)산에서 내려오는 우물 물로 빨래를 함.					
- (김갑성)70년대에는 신기촌 위의 개천 독을 타고 걸어 다녔음.					
- (김연수)신기촌 일대의 저수지(방죽) 아래로는 과일 밭이 있었음.					
2. 폭이 매우 넓었던 승기천			00:07:38~ 00:10:52		
- (김갑성)물이 가득 찼을 때는 수영해서 건너야 할 정도로 폭이 넓었음.					
- (김갑성)폭이 매우 넓어 반대편으로 소리를 전달해도 잘 안 들릴 정도.					
- (김갑성)물줄기가 양쪽으로 갈라지면서 물의 양이 줄어들.					
- (김갑성)가운데 파진 곳으로 물이 흘렀고 양옆으로는 농사를 짓기도 함.			00:10:53~ 00:19:35		
- (김갑성)독에서부터 밭, 개천으로 단계별로 층층이 내려가는 형태. 개천은 물이 흐르는 대로 두세 갈래로 갈라져 흐름.					
3. 용의 모습을 닮은 용현동 일대					
- (김연수)저수지 물이 신기촌 쪽으로 많이 내려감. 일대에 인가가 있어 우물을 만들어 빨래 등을 함.					
- 마을에 홍역(돌머리 병)이 생기면 약이 없어 마을 아이들이 많이 사망함.					
- (김갑성)독정이 고개는 지반 자체가 높아 겨울이면 버스가 고개를					

오르지 못함. - (김연수)현대유비스병원 자리가 용머리 부분으로, 산줄기와 계곡이 있었음. - (김갑성)승기천은 반대편에서 소리 지르는 것이 들리지 않을 정도로 넓었고, 평소에는 물이 많이 차지 않고 얇게 흐르는 정도였음.		
4. 승기천 관련 에피소드		
- (김연수)졸업식 날 밀가루 세례를 받고 승기천에서 밀가루를 닦아냈음. - (김갑성)승기천은 폭은 넓었지만 비가 안 올 때는 얇은 데만 졸졸 흐르는 정도였음.	00:19:36~ 00:22:23	
5. 승기천 복개사업		
- (김갑성)장마 때 하수도로 내려가는 많은 양의 물이 원래는 하천으로 내려갔었음. - (김갑성)사 년 전쯤 용남시장에 물이 넘친 것은 동양장사거리(승기사거리) 일대의 발전기 용량보다 더 많이 비가 왔기 때문임. - (김갑성)장마가 내리면 수봉공원 일대의 물이 동양장사거리(승기사거리) 일대로 흘러감.	00:22:24~ 00:28:25	
6. 승기천의 물길		
- (김갑성)승기천은 매우 넓었지만 물이 많지는 않아 물길 옆에서 발농사를 짓기도 함. - (김연수)승기천에서 붕어와 같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었음. - (김연수)만조와 장마가 겹치면 물이 넘쳐버려 산을 깎아 물길을 메꾸어 버림. - 수봉공원에는 놀이기구와 동물원이 있어 소풍을 많이 감. 수봉공원 일대의 물길에서 물장구를 치며 놀기도 함.	00:28:26~ 00:32:54	
7. 물이 많은 독정지		
- (김갑성)독쟁이(독정지)에서는 부인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물이 많았음. - (김갑성)지금도 지하수가 많이 나와 방수를 잘못하면 물이 차오르기도 함. - (김갑성)옛날에는 하수도 시설이 변변치 않아 물이 그냥 바닥으로 흘러내려 감. - (김갑성)수봉산도 물이 많은 곳으로, 산 정상에 물탱크에서 남구(미추홀구) 일대로 밀어 보냄.	00:32:55~ 00:43:25	
8. 마무리		
- (김연수)과거 미추홀구에 있던 세 갈래 물길(용현시장, 신기시장, 방죽 방향)을 찾아야 함. - (김연수)승기천의 물은 모두 바다로 빠졌음.	00:43:26~ 01:15:16	

- (김연수)저수지 한쪽을 막아버려 물이 바다로 역류하게 됨. - (김갑성)독쟁이(독정이) 고개 주변 시장은 물이 부족할 걱정은 없었음. - (김연수)물줄기는 혈관의 핏물과도 같기 때문에 미추홀구가 살아나려면 물줄기가 있어야 함.		
--	--	--